



사회 전반의 융합 활성화 2차 토론회

“과학+문화예술+인문 접목 노력  
중요한 시대적 이슈”

글 곽충 편집실

“**과** 학기술과 문화예술이 더욱 깊이 있게 만나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예술 분야는 이제 과학 기술과 접목해 ‘첨단문화예술’이 돼야 한다.”(홍성욱 서울대 교수)

“과학에 인문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인문학에 과학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

“사회적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이경미 충청지역사업평가원장)

사회 전반의 융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사이언스홀에서 ‘사회 전반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융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발표자로 나선 여명숙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는 ‘무늬만 융합은 언제 끝나는가’라는 주제로 “융합은 모순의 극복 또는 제3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문제를 찾는 능력이 융합인재의 핵심역량”이라고 정의했다. 여 교수는 “융합은 경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소통과 나눔이 키워드가 된다”며 “실질적 융합을 위해서는 뇌를 자연스럽게 갖고 놀며 경계면에 서서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 교수는 게임산업을 예로 들며 “게임은 인문기술융합의 알파요 오메가”라면서 “진정한 놀이가 자연발전의 원리이며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뇌와 디자인 그리고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은 ‘라마찬드란의 예술의 10대 원칙과 뇌가 인식하는 원리를 연결지으며 융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미를 최대화하고 교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사회에서 노이즈를 낮추면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 정보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자연과학자들이 인문학을 배우고 융합하려는 현상은 활발하지만,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고 학문의 경계선이 분명한 현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학문의 융합을 위해 우리는 자연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외우다시피 공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과 플로어의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정 호 KAIST 교수는 “융합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근복 충남대 정책대학원장은 “정책교육에 있어 학제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융합적 교육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융합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융합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에 대해 여명숙 포항공대 교수는 “사실 사회 전반에 융합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하며 “창의성 인재 양성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유행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융합에도 컨셉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문호 ETRI 연구위원은 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직업으로서의 과학은 있었지만 문화로서의 과학은 없었다”며 “융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 기본 바탕이 있어야 융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총은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융합이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 융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부 및 과학기술계 등과 적극



▶ 여명숙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적인 소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과총은 7월 18일 부산에서 3차 토론회를, 4차는 7월 25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6월 12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이은우 UST 총장, 최종배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영호 대전과총 회장, 이세경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이정순 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장,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범순 KAIST 교수 등 과학기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패널과 주요 인사 발언내용(가나다순)이다.

#### 김요셉 대덕넷 기자

#### “융합하려면 언어적 디자인부터 잘해야”

우리나라엔 순수기초과학이란 분야가 존재한다. 영어권에서 당신은 무슨 연구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I am in Basic science field.”라고 하면 그만이다. “Pure basic science”라고 답하지 않는다. 순수기초과학이란 말 자체도 우습지만 순수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응용학문과 교류하는 것을 마치 양반이 천한 것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융합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적 자만심은 융합적 학문을 구축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 “창의성 위해 다양성 수용과 융합이 중요”

사회전반에 대한 융합토론회는 창조경제의 걸림돌을 해



▶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정부도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고민 중이다. 창의성을 위해서는 다양성 수용과 융합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과 규제들이 있다. 융합을 위한 여러 대책과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이 실질적인 융합을 위한 모범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이경미** 충청지역사업평가원장

**“국민 이해할 수 있는 융합 평가지표 있어야”**

융합을 어떻게 판단하고 측정하는가. 사회적 융합이 활성화가 되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융합은 어울림이 아닐까 한다. 흔히 산을 융합과 비유한다. 산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 5월의 산은 기분이 좋다. 산은 힐링을 준다. 융합은 저절로 되는 것인데, 인간의 의지 때문에 융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융합을 위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병민** UST 교수

**“융합 위한 기술과 인센티브 마련 필요”**

UST는 학문의 다각적인 부분을 접목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UST 스스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새롭게 많은 것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융합기술과 융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융합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에 있는 아이디어를 UST도 모으도록 하겠다.

**이은우** UST 총장

**“융합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엔진”**

융합이 잘돼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 융합이 필요하다. 융합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엔진이며 자연발전의 원리다. 과학기술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많은 것들이 나온다. 다른 분야와도 융합돼야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미래부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장재** 과총 부설 정책연구소장

**“인문에서 과학, 과학에서 인문 접목 중요”**

미래창조과학과 창조경제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창조경제를 어떻게 흥행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핵심 아젠다가 됐다. 과학에 인문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인문학에 과학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융합을 위한 과감한 노력과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찬구** 충남대 교수

**“정책주체와 혁신주체 간 교류 활성화해야”**

대전은 정책융합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주체와 혁신주체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전은 여러 주체가 따로 놀고 있다. 혁신주체인 연구소는 사회를 위해 고민을 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혁신주체와 정책주체 사람들의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상시 자문체계, 상호 인력 파견 등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과학도시 대전이라면 과학부시장을 왜 탄생 못 시키나. 대전이 융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

**“첨단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대”**

장동건 배우 영화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안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첫 흥행이 성공한 감독과 그 다음 작품을 선택했는데 그게 모두 실패였다. 융합은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시도다. 안전한 선택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과학기술과 ICT, 상상력의 조합이 중요하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더욱 깊이 만나야 한다. 서로 더 깊이 소비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부가가치가 높다. 첨단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대. **ST**